



OPEC의 석유생산 및 가격정책

이 자료는 OPEC조사부의 Jafar Mansour Saad이 사가 최근 아랍에너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註>

OPEC의 (석유수출국기구) 석유생산 및 가격정책은 복잡하고, 또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장의 보고서로서 만족스럽게 커버할 수는 없다. 비록 내재하는 원리와 장기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OPEC의 정책은 특히 油價에 대한 지배력을 갖춘 74년 이후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주로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OPEC의 정책변화는 세계석유산업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OPEC의 정책은 크게는 세계석유시장의 수급균형과 특히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간단없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OPEC의 정책진화 과정을 뚜렷한 3단계(태동, 변신, 도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단계는 OPEC이 연합체로서 조직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胎動의 단계이다. OPEC는 메이저들의 일방적인 油價인하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60년 9월 주요 5개 산유국에 의해 결성되었다. 당시 油價체계의 근본인 공시가격이 59년 2월 8.65% 인하된데 이어 60년 8월에 또다시 5.26% 인하되었다. 이러한 잇따른 油價인하는 당시 OPEC 기준유종인 아라비안라이트의 공시가격이 2년전의 배럴당 2.08달러에서 1.80달러로 인하된데 기인하였다. 油價인하의 결과 산유국의 석유판매수입은 배럴당 14센트 감소하

였다. 동시에 세계石油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산유국의 재정수입에서 석유판매收入의 의존도도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사실은 59년 첫번째 공시가격인하 이전에 OPEC와 같은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폭넓게 논의되어 왔었다. 59년 4월 1일 카이로에서 열린 제1차아랍석유회의에서 아랍 및 非아랍產油開途國들은 국제석유카르텔(메이저)에 대항하여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石油자원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함과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개발의 필요성 및 정치적 통치권의 차원에서 석유의 생산 및 가격에 대한 主權행사를 주장하였다. 산유개도국들은 경제적 독립 없이는 정치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과거 식민시절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있었다.

더구나 산유국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石油자원이 개발 및 가격에서 전적으로 외국회사의 통제에 있는 한, 경제적 독립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외국회사의 사업등기 및 이해는 소속국의 정치·경제전략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60년 바그다드에서 이루어진 OPEC결성을 위한 최종합의는 회원국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9년과 60년의 메이저에 의한 油價인하조치는 이 과정에 촉매역할을 한 셈이며, 속담의 표현대로 낙타의 등을 때린 격이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결실에도 불구하고 OPEC는 油價를 59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대신 OPEC

는 로얄티 인상, 메이저에 의한 시장분할 및 할인판매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60년말의 배럴당 69센트이던 아라비안라이트의 정부수입금을 70년말에 91센트로 인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첫단계 기간동안 OPEC의 보다 중요한 업적은 무형적인 것으로서 70년대초까지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1. OPEC전략의 기초

60년대동안 OPEC는 향후 세계석유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의 원칙들을 꾸준히 세워 나갔다. 이 기초들은 68년 6월 제16차회의에서 채택된 「회원국의 석유정책에 관한 선언적 성명」(Declaratory Statement of Policy in Member Countries)에 구현되어 있다.

이 선언적 성명에 담겨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의 石油자원은 각국의 재정수입 및 외화수입의 중요한 원천중의 하나이다.

둘째, 이들 자원은 有限하며, 枯渴性이다.

셋째,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하여 영원한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 성명은 회원국들에 의한 직접적인 石油자원 개발을 촉구하고, 原油가격에 관하여 2개의 역사적 지침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수입액을 결정짓는 공시가격 또는 조세 참고가격은 자원보유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다른 공산품 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유가격의 어떠한 하락도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의 원칙들이 OPEC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 성명의 이행의 방법과 수단은 회원국 각자, 또는 지역적 소집단의 차원에서 결정하여야 했다.

메이저와의 개별적 또는 지역적 협상의 원칙들은 70년 카라카스의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120개의 결의안 가운데 페르시아湾의 6개회원국들은 메이저와의 협상에 있어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로 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된 이론적 근거는, 결의안에 의하면, 이 6개국이 지리적으로나 기타 조건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타조건」이란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이들 6개국은 완

전한 국제카르텔(메이저)을 상대하여야 하며, 메이저와의 조광권 계약조건이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산유개도국들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함축한다.

OPEC는 60년의 5개국에서 70년말에는 10개국으로 회원국수가 늘어났으며, 또 이 기간동안 세계石油수요 증가에 의해 OPEC 석유의존도가 높아진데 기인하여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60년에 5개 기초회원국의 산유량은 모두 790만b/d로서, (공산권 제외) 세계石油공급의 42.4%를 차지하고 있었다. 70년에 10개 회원국으로 증가한 OPEC의 산유량은 2,219만b/d로서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3%로 증가하였다.

68년의 「선언적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지역적차원에서의 접근이 70년대에 접어들어 73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즉, 그동안 조직으로서 모호한 느낌이 강했던 OPEC가 70년대에 들어와 變身을 시작하여 세계石油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나아가 세계의 주요 경제세력으로서 탈바꿈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에 각국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71년 2월 프랑스의 石油지분 51%를 국유화한 알제리를 필두로, 동년 12월 리비아가 BP지분을 국유화하였고, 72년 6월 이라크 정부에 의한 이라크석유회사(Iraq Petroleum Company)의 완전 국유화조치 등이 있었다. 이라크 IPC국유화는 OPEC가 국제석유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승을 거둔 震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 공동대응의 차원에서는 71-72년 기간동안 페르시아湾 6개국이 메이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관철시킴으로써 진전을 보았다. 이 요구조건에서 페灣 6개국은 첫째, 산유국과 협의없이 메이저에 의한 일방적인 油價결정을 배제할 것과, 둘째, 油價결정에 있어 美달러화 가치의 변동요인을 반영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시대적 배경은 71년 8월 15일 닉슨정부에 의한 美달러화의 金換증지 결정이었다. 이에 의해 73년 3월까지 외환시장은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달러화가치도 약 17% 절하되었다. 이 결과 석유판매대금을 달러화로 결제받는 석유수출국들은 심한 구매력 감소를 겪었다.

2. OPEC의 결속

그러나 페르시아灣 6개국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진전은 73년 10월16일 쿠웨이트에서 결정한 「原油가격 결정에 있어서 산유국의 배타적 권리 선언」이었다. 이에 의해 국제원유 가격에 대한 메이저의 통제력은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후 同6국은 아라비안라이트에 대한 산유국 정부의 수입금을 74년부터 배럴당 7달러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원유인 아라비안라이트의 공시가격은 배럴당 11.651달러로 인상되었다.

73년 10월과 12월의 결정이 페灣 6개국에 의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들은 곧 OPEC의 결정으로 동일시되며, OPEC는 처음으로 油價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하였다.

74년을 통하여 OPEC관계자들은 原油가격 결정에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OPEC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을 가졌다. 이러한 원칙들은 75년 3월 알제리의 수도 알제이에서 열린 제1차 OPEC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선언」(Solemn Declaration)으로 마무리되었다.

본질적으로 이 「중대한 선언」에는 OPEC의 가격 및 생산정책 요소들과 OPEC의 궁극목적이 개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 선언에서 OPEC는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자 했다.

- 他에너지에 대한 石油의 경쟁력 유지
- 美달러화가치의 변동으로부터 OPEC의 石油판매수입의 구매력 보호
- 非재생자원 및 석유화학, 비료 등 제품들의 광범위한 원료로서의 石油의 본질적 가치(소위 석유의 품격있는 효용가치)
- 油價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新경제질서수립을 위한 開途國의 노력
- 油價의 수급균형 유지를 위한 생산규제 및 계획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검토되고, 단절된 남북간 대화의 해결이 제기되는 가운데 OPEC가 내린 유일한 중요 결정은 75년 10월 1일의 油價 10% 인상결정과 이어서 77년 1월 1일의 비슷한 油價인상 결정이었다. 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OPEC회원국들은 국유화, 또는 지분의 완전소유를 통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공시가격 또는 조세참고가격등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75년 10월1일의 油價인상시에는 공시가격이 정부판매가격(government selling price)으로 대체

되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석유산업을 지배하여 왔던 租鐵생산제약체계의 支柱가 제거되었다.

순수한 상대적 견지에서 볼때 75년과 77년의 油價인상은 무난했다고 보아진다. 78년 기준원유의 평균가격은 74년에 비해 배럴당 2.24달러(21%) 인상에 불과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그룹의 수출공산품 가격지수는 약 40% 인상되었다.

78년말 조만간 단기적인 공급중단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OPEC는 79년 평균가격을 78년대비 10% 인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기별 油價인상 프로그램을 성안하였다. 이렇게 면밀하게 준비된 계획은 78년초 石油시장에 휩쓴 일대 혼란으로 실행에 차질을 빚었다.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상황악화에 대처하는 OPEC의 노력도 별무성과였다. 이처럼 OPEC의 대응노력이 성과없이 끝나게 되는데는 石油의 실질적인 공급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로 메이저의 유희와 주요 소비국정부의 과잉반응이 상황을 견잡을 수 없이 악화시킨데 기인한다.

실제로 79년 OPEC의 原油 및 제품수출은 78년에 비해 거의 1백만b/d 증가하였으며, 세계 총생산량도 약 250만b/d 증가하였다. 78년-79년 사이 세계 총석유소비 증가가 60만b/d에 그친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79년의 석유공급부족사태는 코스트가 높은 非OPEC석유를 비롯한 他에너지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또 주로 油價를 끌어 올려 막대한 순익을 남기려는 메이저 및 투기자들의 공작에 의한 인위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OPEC는 油價를 78년말의 배럴당 12.70달러에서 79년 3/4분기에 14.16달러, 그리고 4/4분기에 14.54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시장가격은 79년 후반기에 배럴당 40달러로 폭등하였다.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던 대부분의 OPEC회원국들은 2배 또는 3배의 높은 가격으로라도 石油를 구매하고자 매달리는 구매자들에게 공식가격으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79년말 OPEC는 油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2중 가격제 그리고 나중에는 3중 가격제의 채택을 둘러싸고 내부적 결속도 깨진 듯이 보였다.

3. OPEC 시장지배력의 약화

81년 10월에 가서야 OPEC는 가가스로 기구의 결속

력을 회복하고, 기준원유(아라비안라이트) 가격 배럴당 34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구조를 단일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79-80년의 가격폭등에 의해 야기된 石油시장의 불균형, 즉 메이저와 소비국에 의한 상당한 石油비축, 시장분열, 투기자 및 중개인들의 영향력 증대, 他에너지源의 개발과 非OPEC석유생산증대 등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듯 하였다.

OPEC가 油價 단일화를 취한지 거의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OPEC는 세계 石油수요감소와 非OPEC의 石油공급 증대라는 해묵은 문제에 또다시 부딪혔다. 이에 따라 OPEC는 두개의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즉 산유량을 더 감축하든지 아니면, 코스트가 높은 非OPEC원유의 생산을 둔화시키기 위해 油價를 인하하는 방법이다. 이 두개의 옵션은 모두 80년 2,870억 달러로 피크에 달했던 OPEC의 石油판매 수입의 상당한 감소를 요구하였다.

82년초 OPEC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론을 하였다. 여기서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졌는데, 그 근거로서 石油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작아서 OPEC의 수입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高油價를 지지하기 위한 산유량 감축은 대체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세계 石油시장에서의 OPEC의 세어 감소를 초래하여, OPEC의 油價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異論도 제기되었다.

82년 3월 OPEC가 산유량을 1,800만b/d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후 OPEC는 油價를 배럴당 5달러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산유량은 1,750만 b/d로 더욱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세계 石油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非OPEC의 공급량은 81년 1,184만 b/d에서 82년 2,009만b/d, 83년 2,088만b/d, 84년 2,220만b/d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油價인하에 의해서도 OPEC원유의 세어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OPEC는 84년 10월의 北海産 原油가격 인하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11월초에 산유량한도를 1,600만b/d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85년까지 OPEC의 세어는 40%로 낮아졌다. 실제로 나이지리아産 原油가격의 인하는 85년에 들어와 石油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85년 2월에 원유가격은 배럴당 약 1달러 인하하였다. 油價인하 압력의 지속

으로 OPEC 회원국들은 산유량을 감축하여도 공식가격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생산쿼터 및 공식가격에 구속되지 않는 非OPEC 산유국과의 경쟁에서 시장확보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OPEC회원국들은 공식가격의 직접 또는 간접적 활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을 채택하였다.

시장환경이 거의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한 일부 OPEC 회원국들은 85년 12월의 제76차 회의에서 OPEC의 시장세어 확보 및 방어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곧 OPEC가 가격방어 정책을 포기하고, 非OPEC 산유국에 대하여 「油價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시장상황은 86년 7월까지 OPEC가 생산 및 가격에 관한 명확한 정책수립에 실패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국제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에는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 가격수준은 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히기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86년의 시장상황은 OPEC 정책의 소산이 아니라, OPEC가 시장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이래 OPEC가 직면한 문제들의 표출이었다. 당시 OPEC가 대응하여야 했던 주요한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OPEC의 대응

(1) IEA의 대응

주요 산유국이며서 국제에너지기구(IEA)내에서 反OPEC를 주도하는 美國 및 英國의 태도이다. 74년말 美國의 주도아래 설립된 IEA의 기본취지는 OPEC에 대한 대항 세력 구축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IEA의 주요 목표가 油價를 끌어 내리거나 또는 74년 이후 더이상의 油價인하를 저지시키는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美國과 英國은 실제로는 여전히 고유가를 원하고 있으며, 美國과 英國의 일부 지방은 86년의 油價폭락으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더구나 IEA가 최초로 취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76년초 배럴당 7달러의 최저가격 설정이었다. 79년의 제2차 석유히기에 대해서 메이저 및 주요 소비국이 소속되어 있는 IEA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다.

IEA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평등한 정치 및 경제적 관계를 위협하는 주요 경제세력으로서의 OPEC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평등한

구조관계는 식민화시기 초기에 강요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경제력을 지닌 OPEC가 출현하기까지 지속, 방치되어 왔다.

(2) 非 OPEC 개도국의 대응

油價방어는 전적으로 OPEC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非OPEC 산유국들의 생산량 극대화 정책이다. 이 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OPEC의 油價인상에 힘입어 산유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가능한 많은 생산량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들은 석유수급상황이 타이트할 때는 OPEC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OPEC원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왔다. 76-85년 10년 동안 非OPEC 개도국의 石油생산은 약 134% 증가하였으며, 英國, 노르웨이의 산유량도 무려 571%나 증가하였다.

반면 OPEC의 산유량은 거의 50% 감소하였다. 86년 노르웨이뿐 아니라, 이들 산유개도국들의 일부(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오만, 앙골라)는 油價체제 지지를 위하여 OPEC와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하고, 「油價체제의 방어 및 복원은 세계 모든 石油수출국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장기전략

OPEC의 단기적인 안정구조 전지와 아울러 장기적인 전략구축에 실패한 데는 86년 사상최악의 油價폭락으로 절정에 달한 시장환경악화에 기인한다고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OPEC가 이미 78년 5월초, 이러한 전략의 준비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5개 기초회원국과 알제리를 포함한 고위급 각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 장기전략의 성안을 위임받았다.

- 주요 石油소비국의 경제성장, 美달러화의 가치변동, 그리고 OPEC가 수입하는 공산품의 가격상승 등 3개의 중대한 가변적 요인을 고려한 원유가격의 장기적 조정
- 특히 무역관계 증진을 통한 타개도국과의 협력관계
- 주요 공업국과의 관계

이러한 전략의 세부사항에 관한 OPEC내의 소소한 의견차이는 차치하고 전략의 이행에 제동을 걸은 주요한 요인은 79-80년의 油價폭등과 그 이후의 지속적인 油價

하락이었다.

따라서 돌이켜 보건대, 86년의 油價급락은 실제로 서방의 매스컴이 묘사한 油價전쟁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OPEC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로부터의 필연적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石油의 가격, 공급 및 수요는 소위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져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의 위선적인 집요함에서 비롯되었다.

이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도 石油와 같이 고갈성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가격은 교과서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기능에 의할 경우, 선진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생산코스트의 原油는 우선적으로도 태되기 때문이다. 고갈성 자원은 재생산 가능한 재화나 용역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코스트에 의해 가격이 정하여질 수 없다.

이들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견해의 오류를 인정하고 또, 86년의 쓰라린 경험으로 입증되었을 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를 시인할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3년 제1차 석유위기시 즉각적으로 反OPEC 캠페인을 전개했던 서구의 언론들이 86년에는 油價하락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OPEC를 매도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아이로니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OPEC에 대해 세계 石油시장의 안정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으로 86년의 상황을 가까스로 평정하고, 87년의 석유시장에 안정을 회복하게 한 것은 고정가격정책을 통한 OPEC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5. OPEC의 향후 진로

그러나 87년 OPEC에 의한 시장안정 성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주요 非OPEC 산유국들의 태도에 관한 한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OPEC가 직면해 온 문제들도 74년 이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서 석유시장 환경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위태롭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시장의 기본적 지표들은 OPEC가 향후 油價전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OPEC은 原油생산 코스트가 가장 낮으며, 세계 확인매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안에 세계에서 OPEC의 절대적인 위치가 드러날 것이다. OPEC는 가격문제에 관한 본래의 정책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즉, OPEC의 총생산능력 및 매장량에 상응하는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석유수출 대전의 구매력을 보호하며, 石油의 가격 및 생산정책을 국제경제 관계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다.

87년에 보여준 전전으로서 OPEC는 고정가격제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87년초 이후 1개 非OPEC 유종을 포함한 7개 유종의 평균가격을 나타내는 배럴당 18달러의 참고 가격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과 제도화는 적어도 단기기간에 있어서는 모든 非OPEC 산유국들이 기꺼이 OPEC와 함께 油價 방어 및 시장안정 유지의 부담을 공유하려는 의지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OPEC는 최근 非OPEC 산유국과 구체적이고 확실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지 美國과 英國과 같은 부유하고 풍부한 산유국들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인 13개 OPEC회원국이 경제적 어려움 및 재정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심지어는 非OPEC 산유개도국 가운데 대다수가 대부분의 OPEC국가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며,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타 산유국들의 경제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해 OPEC회원국 국민들에게 생활수준 저하를 계속 감내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다. 물론 OPEC는 美달러화 가치의 불안정,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代替 및 절약에 의한 負의 효과 등의 요인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들

요인외에 보다 가중되는 문제는 非OPEC 산유국들의 태도이다.

현재의 상황과 단기적인 시장전망, 그리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종합할 때, 유가는 현재 인하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납득할 만한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동안 이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油價인하 압력의 주요인은 OPEC의 산유량이 2,000만b/d를 기록한 87년 3/4분기 동안 상당한 石油비축이 이루어진 외에도 86년 油價폭락시 막대한 석유비축이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유시장의 주요세력(메이저, 美國, 北海산유국)들은 油價붕괴의 파국이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油價 및 OPEC에 대한 자신들의 종전의 입장을 재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OPEC의 생산 및 가격정책은 74년에서야 실체화 되었으며, 그 이후 간헐적인 상황급변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OPEC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한 OPEC의 업적은 보유자원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지배력을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단합된 조직으로서 행동하는 개도국들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개도국들은 정치체제, 경제개발 전략, 그리고 천연자원이든 인적자원이든 보유자원의 相異등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집단적 경제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OPEC의 성공은 대부분의 개도국들에게 경제적 자립으로 이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OPEC의 石油생산 및 가격정책은 반드시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 (OPEC bulletin, 88. 4)

낭비없는 알뜰피서

약속되는 밝은내일